"우리 또 라면 먹어?"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건조한 눈빛으로 찌그러진 양은냄비에 젓가락을 넣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끓였는지 라면이 불다 못해 퍼져 있었다. 새빨간 국물에서 매운 냄새가 코를 간질였다.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었다. 신라면이구나.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라면 1위가 신라면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싼 가격에 한국인이 생각하는 라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가, 우리 집 찬장에도 늘 신라면이 두세 봉지씩 쌓여 있었다. 조용하게 움직이던 젓가락이 엄마의 입으로 들어갔다. 싱크대에 놓여 있는 싸구려 전자레인지는 무엇을 품고 있는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수현아."

엄마가 젓가락을 놓는다. 건조하던 엄마의 눈빛이 촉촉해진다.

"미안해."

"……."

"엄마가 미안해."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미 우편함에는 각종 요금을 독촉하는 우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집주인은 하루가 멀다고 밀린 월세를 내라며 독촉 전화를 해댔다. 나도 남들처럼 반찬 투정이나 하는 딸이 되고 싶었지만,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엄마에게 못된 자식이 된 것 같았다. 옛날엔 찢어지게 가난하면 겉모습에서부터 티가 났다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도 아니었다. 값은 싸지만, 모양은 그럴듯한 물건들이 많았다. 당장 밖에만 나가도 프라이팬을 오천 원에 살 수 있는 세상이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겉으로 보기엔 멀끔했지만 그뿐이었다. 금방 고장 나고 볼품없어졌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딱 그 값어치를 했다. 비싸게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오랫동안 견고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엄마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문제였다. 돈은 불어나지도 않으면서 생기는 족족 밀린 공과금이나 월세로 나갔다. 가난은 오늘 벌어서 어제 쓴 것들을 메꾸는 일이었다. 엄마는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 엄마는 다시 젓가락을 들어 퍼진 면을 집어 올렸다. 몰래 먹는 것도 아니면서 면을 입에 넣고 소리 없이 씹었다. 전자레인지가 땡, 하고 우렁차게 소리를 낸다. 고작 고등학교 삼학년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는 유서 한 장 없이 죽었다. 경찰은 엄마가 남긴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온 집 안을 뒤졌다. 그러나 작은 메모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와 내가 그곳에서 머문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다녀갔다. 학교 안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내가 상담사에게 표정 없는 얼굴로 괜찮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 동안의 일이었다. 내가 집에 갔을 땐 아무도 없었다. 여러 군데 바닥에 찍힌 신발 자국만이 나를 반겼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을 치르고 봉안당에 엄마를 두고 나와서도 그랬다. 엄마가 남긴 돈으로 겨우 원룸을 구해 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나 하며 살고 있다. 목표나 꿈 따위는 없다. 그냥 살아갈 뿐이다.

분리수거함에서 가득 찬 쓰레기봉투를 꺼내 묶고 밖에다 내놓는다. 다시 들어와서 전자레인지 두 대의 문을 열어 그 안을 닦았다. 도대체 이 안에 음식을 넣을 때 무슨 짓을 하길래 매번 지저분할까. 요즘은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컵라면이 많이 나왔다. 나무젓가락과 뜨거운 물이 항상 준비된 만큼 가게 안에서 컵라면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전자레인지 안은 항상 말라붙은 라면 국물 자국이 가득했다. 그 얼룩을 지우려면 수시로 닦아 줘야 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몸에 좋지도 않은 라면을 좋아할까. 짜고 매운 자극적인 맛 때문일까. 아니면 간편해서일까. 값이 싼 것도 큰 몫을 할 것 같았다. 하긴, 당장 편의점에 파는 샐러드만 해도 컵라면 세 개의 값을 훌쩍 넘는다. 건강 하려면 왜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가도 알 것 같지만, 굳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언제 어떤 감정으로 엄마 생각이 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 차라리 모른 채 살고 싶다.

전자레인지 안을 깔끔히 닦고 문을 닫는다. 그러고 보니 진짜 답장이 없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온다. 나는 오늘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를 상투적인 인사를 하며 간이 테이블을 닦는다. 가게 안에는 오래된 노래들이 반복적으로 쉼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마 점장의 취향이겠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발매된 노래였지만 하도 들어서 이제 몇 곡은 후렴을 따라 부를 수 있을 지경이다. 아무 관심 없이 듣는 음악이라 정확한 곡의 제목이나 부른 가수는 모른다. 그래도 지금 나오는 노래의 제목은 알 것만 같다. 꿍따리 샤바라나 빠빠빠가 여러 번 반복되니 '꿍따리 샤바라'나 '빠빠빠'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미 우편함에는 각종 요금을 독촉하는 우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집주인은 하루가 멀다고 밀린 월세를 내라며 독촉 전화를 해댔다.

"학생 몇 살이에요?"

"저요?"

오십 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손에 캔커피와 생리대를 들고 나에게 묻는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에는 궁금증이 진하게 묻어 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알아요? 내 딸이랑 비슷한 나이 같아 보이는데."

우리 딸이 스무 살이거든요. 우리 딸도 이 노래 좋아해. 학생네 엄마가 이런 노래 자주 들어요? 여자의 말끝을 흐린다. 나는 잠깐 고민한다. 내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다. 점장님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그냥 사실을 말할까. 왠지 이 여자가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그걸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문득 솟구친다. 편의점에서 내가 속사정을 말하지 않는 이상 내 모습은 삶의 풍파라곤 겪어본 적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계절을 모르는 발목 없는 양말 때문에 발목이 시리다.

"그냥…… 가사가 좋아서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는 계산을 하고 나간다. 딸이 스무 살이구나. 나는 스무 살 때부터 엄마가 없었는데. 아랫배가 아리다. 나도 생리할 때 됐나. 투명한 유리 벽 밖으로 여자가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나는 여자가 멀어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눈으로 좇는다. 여자가 걷는 걸음이 음악의 박자와 이상하게 잘 맞아떨어진다. 가사가 좋긴 개뿔. 노래 제목이 뭔지도 정확히 모른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희비가 엇갈린 세상 속에서.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

퇴근 한 시간 전. 이 시간이 되면 머릿속엔 온통 퇴근하고 싶은 마음밖에 남지 않는다. 다시 손님을 쳐다보지 않는 척 쳐다보며 '신뢰하는 감시'를 하고, 바코드를 찍고, 인사를 하고, 물건을 채워 넣는다. 그 사람에게서 다시 문자가 온다.

'알겠어요 줄게요 나오기 편한 장소 알려 줘요'

문자를 보자마자 횡재했다는 생각보다는 덜컥 겁부터 난다. 아까 집요하게 물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공짜로 달라는 말에 덜컥 알겠다고 하는 걸 보니 이건 인신매매나 범죄일 게 확실하다. 왜 멍청이 같이 꾸역꾸역 답장했을까, 후회된다. 나는 지금이라도 번호를 차단해야겠다 싶어 그 사람의 번호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표시를 누른다. 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일 밑으로 내리니 '발신자 차단'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 사람은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문자를 보내왔다.

'범죄 이런 거 아니에요 믿어 주세요'

더욱더 범죄라는 확신이 든다. 화면 위쪽에 미리보기로 뜨는 문자를 무시하고 다시 번호를 차단하려고 하는데 또 문자가 온다. 이 사람 미쳤나?

'예비 신랑이 죽었어요'

'혼수로 들인 물건을 처리해야 해요'

퇴근 후 나는 놀이터로 향한다. 편의점이나 집 근처에서 만날까 고민했지만, 동정에 호소하는 범죄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의심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향하는 놀이터는 집이나 편의점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나마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했는데 답은 놀이터였다. 오후 두 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니 지금쯤이면 코흘리개 꼬마 한 명쯤은 그네나 미끄럼틀을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놀이터에는 CCTV가 24시간 돌아간다. 또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를 수 있는 비상 버튼도 있다. 매번 지나가다가 봤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놀이터로 가는 동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길을 걷다가 낯선 소리라도 나면 나는 쓰레기를 뒤지다 들킨 도둑고양이처럼 몸을 움찔거렸다. 그러나 왔던 길을 돌아가거나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조금쯤 것뿐이다. 놀이터가 가까워질수록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겁먹을 거면서 나는 왜 놀이터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마주친 적도 없는 생판 남에게 왜 나는 기시감을 느낀 것일까.

놀이터에 가까워지니 발걸음이 아까보다 더 조심스러워진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는 없었다. 요즘엔 이 시간에 다들 학교나 학원에 있나. 아, 요즘 애들은 놀이터에서 안 노나? 하긴 편의점에 오는 초등학생만 해도 전부 휴대전화에 코를 박고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뒤에서 나를 붙잡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최대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척 굴며 놀이터를 한 번 훑어본다. 놀이터는 한적했다.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냥 돌아가려 몸을 돌린다. 그때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하얀색 전자레인지를 들고 있는 여자가 보인다.

"저랑 문자 하신 분 맞죠?"

나는 얼결에 고개를 끄덕인다.

여자는 오늘 처음 봤는데도 많이 야위어 보인다. 표정이나 말씨처럼 눈에 보이는 여자의 모든 행동은 힘겹게 여자의 몸에서 출력되는 듯했다. 얼핏 보기에 그리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다. 갓 서른을 넘긴 느낌이다. 여자는 나에게 전자레인지를 넘긴다. 나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 전자레인지를 받아 들면서도 여자의 행동을 주시했다. 여자가 나를 보며 피식 소리 내어 작게 웃는다.

"아직도 내가 의심이 가요?"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 그게. 그러니까…" 해버린다. 여자가 미소 짓는다. 바람이 살짝 불고 느슨하게 묶어 삐져나온 여자의 잔머리가 살짝 흔들린다.

"믿어 줘요. 나 진짜 신랑 죽은 거 맞아."

그걸 의심한 게 아니었는데. 졸지에 쓰레기가 되어 버렸다. 나는 수습할 만한 문장을 급하게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럼 왜 그렇게 겁먹은 똥강아지처럼 있어요?"

"이거 진짜 공짜로 주시는 거 맞나 하고……."

여자에게 미안해진다.

어쩌다 보니 나는 여자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전자레인지를 내 발목 근처에 내려놓고 여자가 따라 주는 막걸리를 받아 마셨다. 여자가 잔에 담긴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켠 뒤 우리 사이에 놓인 김치전을 찢어 먹는다. 술은 역시 낮술이지. 여자가 혼잣말한다. 나도 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마신다. 여자가 나에게 묻는다.

"혼자 살아요?"

"네."

"그렇구나."

여자는 더 묻지 않는다. 보통의 어른들은 내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면 나를 인터뷰라도 하듯 질문을 우수수 쏟았다. 이 근처에서 대학을 다니니? 학교도 안 다니면서 왜 혼자 살아? 부모님은 어디 가시고. 부모님 안 계셔? 돌아가셨어? 어쩌다가. 내가 솔직하게 대답하면 동정이나 할 만한 질문들이었다.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하며 측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여자는 연거푸 두 잔을 마시고 나도 여자를 따라 홀짝홀짝 막걸리를 마신다. 여자와 나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술만 마셔댄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머리가 어지러웠다. 먼저 취한 건 여자였다.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았다.

"사람들도 참 이상해. 자기들 궁금하다고 막 물어보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사람인 척 물어보면 뭐 해. 어차피 궁금해 죽겠다는 거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나는 또 고개를 끄덕인다. 주어가 없는데도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이해가 간다.

여자는 더 묻지 않는다.
보통의 어른들은 내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면
나를 인터뷰라도 하듯 질문을 우수수 쏟았다.

"티를 안 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항상 슬플 수는 없잖아.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내내 울면서 살아요?"

"그러니까요."

"학생도 사실 궁금해서 나온 거죠? 그런 불쌍한 사람 얼굴이나 보자, 하고."

"아니요."

여자는 짐짓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이미 여자의 볼이 붉어진 지 오래다. 여자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형광등 빛에 닿아 반짝거린다. 말을 하려니까 엄마 생각이 난다.

"그냥, 공짜 전자레인지가 가지고 싶어서요."

"……."

"저 공짜 좋아하거든요."

여자가 웃는다. 곧 김치전 위로 잔을 든다. 나도 따라 잔을 들어 여자의 잔에 부딪힌다. 우리는 그렇게 막걸리를 몇 병을 짧은 시간 안에 마셔 버린다.

밖은 이제야 막 어두워지려고 한다. 여자는 건물 밖으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문다. 나는 여자에게 받은 전자레인지를 끌어안고 그 옆에 서서 찬 공기를 맞는다. 취기가 좀 가시는 기분이다. 여자는 자신의 담뱃갑에서 한 개비를 더 꺼내 나에게 건넨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여자가 대충 담배를 제 주머니에 넣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곧 연기를 내뱉으며 말한다.

"올해는 12월 21일이래요."

"뭐가요?"

"지구 종말."

여자는 자신이 말을 하고도 웃긴 건지 킥킥댄다. 여자가 웃는 것을 보니 내 입에서도 웃음이 비집고 나온다. 우리는 한참을 웃는다. 여자가 담배 필터를 다시 입에 물고 길게 빨아들이더니 내뱉는다. 술은 사람을 자꾸만 실없게 한다. 웃음이 입가에서 가시지 않은 채로 하고 싶은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

"뭐만 하면 종말이래."

내가 말을 하자 입김이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 여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없이 담배를 피운다. 곧 필터 근처까지 타들자 손가락을 털어 꽁초를 바닥으로 튕겼다.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자 바람이 불고 불씨가 민들레 홀씨처럼 흩날린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린다.

"지구 종말 같은 소리 하네……."

여자는 헤어지기 전에 비틀대는 몸을 애써 지탱하며 꼬인 발음으로 나에게 말했다. 잘 가요. 혹시나 우울해도 죽지 말고요.

집에 돌아와서 휴대전화로 엄마의 기사를 검색한다. 오랜만에 찾아보는 기사였다. '생활고'라는 단어와 '자살'이라는 단어가 뒤섞인 글이 휴대전화 화면을 가득 채운다. 현관문 사진도 보인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진 낡은 현관문 앞에는 자전거 한 대와 분리수거를 할 때 쓰던 사과 상자, 그리고 택배 상자가 쌓여있었다. 택배는 엄마가 죽기 전에 주문해 놓은 것이었다. 당시의 나는 그것들을 열어 볼 엄두가 나질 않아 모두 버렸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겉에 붙은 운송장 스티커에 짧게 쓰여 있었다. 라면이 아닌, 신선하고 파릇해 오래 조리해야 했던 것들은 상자 안에서 엄마가 열기만을 기다리다가 모두 상해버렸다. 나는 사진에서 택배 상자 부분을 엄지로 쓸어내린다. 엄마의 흔적이었다. 엄마는 이걸 어떤 마음으로 주문했을까. 죽기 전에 요리를 해서 나랑 먹으려고 했을까. 아님, 당신이 죽고 나서 나는 라면만 먹고 살지 말라고 주문을 한 것이었을까. 유서는 나오지 않았고 나는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 밖에 들은 적이 없으니 엄마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더듬더듬 전자레인지 코드를 콘센트에 꽂는다. 전자레인지는 새것처럼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흠집이나 말라 비틀어진 밥알 하나 없이 새하얗고 반짝이는 모습의 전자레인지가 여자를 닮았다. 전기가 공급되자마자 작은 흑백 화면에 지금 시간이 깜박거린다. 한참 바라보다가 전자레인지의 레버를 돌린다. 전자레인지는 우웅, 하며 돌아간다. 결혼하려던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어느 순가 땡, 하는 소리가 청량하게 울린다. 나는 또 더 레버를 돌린다. 땡, 소리가 나면 또 레버를 돌리고 땡, 소리가 또 나면 다시 레버를 돌린다. 엄마에게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울린 경보음은 어떤 소리였을지 돌아가는 전자레인지를 보며 가늠한다. 사람들은 진짜 종말이 무엇인지 모른다.

〈끝〉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소감

"이길을 걷고 있다는 걸 문학에게 들키고 말았다"

당선자 이한솔

▲1996년 서울 출생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재학 중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당선 전화를 받던 날, 내가 처음 했던 말이다. 그때 나는 같은 과 친구들과 서울에 있었다. 당시 친구들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

기대에 가득 찬 친구들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끌어안고 울었다. 함께 글을 쓰는 친구들이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지금까지 소설을 계속 써도 될지 의문이 들었다. 소설이라는 게 참 야속해서, 읽고 쓸수록 깊고 소중해져 나는 쓸 자격이 없게 느껴졌다.

나는 결국 이 질문의 결론을 "그만 쓰자"고 결정을 지어버렸다. 그래도 열심히 한 게 있으니 투고는 해 보고 그만둬야겠다, 싶었다. 그리고 당선되었다.

내가 당선된 것이 신의 덕분인지, 혹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는 확신한다. 사람을 따라가는 똥강아지처럼 나는 소설의 뒤를 한참 쫓았었다. 발을 나란히 할 수도 없어 뒤에서 따라갔더니 이제야 나를 돌아봐 주었다. 이제는 그만 쓸 수 없다.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문학에게 들킨 이상, 나는 마음껏 사랑하고 슬퍼하다가, 잠깐 숨을 고른 뒤에 자리에 앉아 글을 쓸 것이다.

부족한 저를 가르쳐주신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민한 딸을 키워 준 엄마와 아빠, 고맙고 많이 사랑해요. 다른 가족들도 고맙습니다. 동생 용혁이도, 나의 정제된 위로가 되어 준 마루도, 아늑한 존재 같은 아라와 정원이도 고마워. 그리고 나에게 문학이자 응원이 되어 주는 하옥단문 친구들과 지속 가능한 청춘 같은 김성모락밴드 친구들. 우리 앞으로도 서로에게 서로가 되어 주며 함께 글을 쓰자. 그리고 이 글을 읽어 주신 당신께도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씁니다.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상처입은 세대의 이야기 담담하게 그려

김인숙 소설가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198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등 수상
▲장편 '모든 빛깔들의 밤' 등 다수

문학이 하는 일은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삶을 한겹씩 들어내면서 그 속의 슬픔과 상실과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 이제 막 작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신산한 삶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채우기도 전에 텅비어버린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신의 일상과 밀착되어 있는 이야기를 성심껏 전달하는 소설들은 언제나 읽는 사람을 감동시킨다. 소설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라도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성실한 자세일 것이다. 반면 독특한 소재를 골라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 묘사에 공을 들인 작품들은 흥미롭다. 흥미로우나 그 소재가 생활 속으로 충분히 녹아들지 못해 아쉬운 작품들도 있다. '무엇을 쓰기 위해서' 들인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잘 짚이지가 않는 소설들.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질문들을 좀 더 공들여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

'가티'와 '체온의 향방'이 끝까지 눈에 띄었다.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제기한 '가티'는 아주 좋은 작품이지만 여러가지 이야기가 한데로 모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전자레인지'는 상처 입은 세대의 초상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의 젊음을 지워가는 세대의 이야기는 독특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어디에나 있는 삶, 어디에나 있는 상실과 상처. 그러나, 상실을 바라보는 이 작가의 시선은 다르다. 누구에게나 거의 다름없는 상처라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과 마주하는 법도 다를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 작가는 그 틈을 포착한다. 그리고 그 틈을 담담하게 매운다. 이 작가의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축하드린다.